

## 알텍스, 대표이사에 정용남 광양공장장 선임

알루미늄 탈산제 생산기업 알텍스는 3월28일 광양공장장인 정용남(53) 상무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정용남 대표이사는 “해외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수출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회사 가치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984년 설립된 알텍스는 제철소의 제강공정에서 쇳물 속에 함유된 산소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알루미늄 탈산제 생산기업으로 국내시장의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남광토건과 전자유통기업 SJD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화학저널 2005/03/29>